

기 도 인 도 자

찬송가 570장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 하여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다 같 이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주 기 도 문 다 같 이

성묘예배순서

- 예식사 (인도자) :
오늘 우리 가족들은 고 ○○○씨의 무덤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 신앙고백 (다같이) :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 찬 송 (다같이) :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 성경봉독 : 욥기 7:1-10
- 권면과 위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려면 먼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인생 고백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욥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인생을 교훈 받아 봅시다.

첫째,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욥은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고 고백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도 인생이 전쟁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출근하여 일하는 것과 사업하는 것이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인생과 같이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엡6:12).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 해서 인생 전쟁에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인생은 베들의 복과 같다고 합니다.

"나의 날은 베들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업이 보내는 구나"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들의 복이란 베를 짜는 베들에 딸린 부족종의 하나로, 숙련된 아낙들은 베를 복을 재빨리 날줄 사이에 넣고 지나게 해서 섬유를 만들어 냅니다. 욥은 인생을 마치 베들의 복과 같이 빠르게 꽃처럼 쉽게 시들고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생은 베들의 복처럼 신속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봄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인생 가운데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아껴 쓰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셋째, 인생은 구름이 사라짐 같다고 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구름에 비유해 노래했습니다.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구름처럼 인생이 태어나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름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보람된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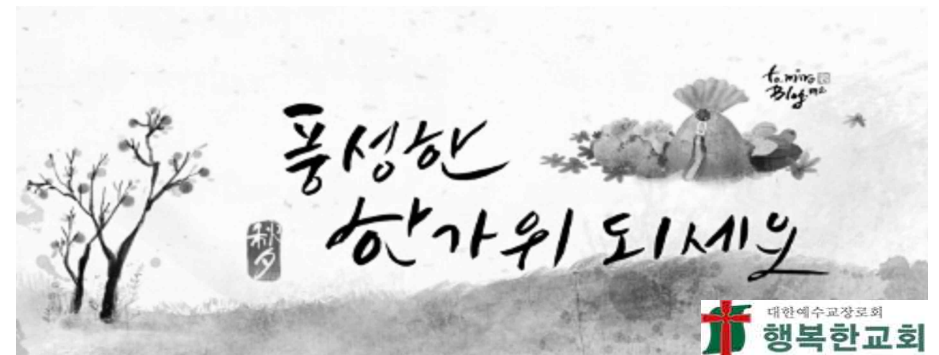
- 찬 송 (다같이) : 1장
- 주기도문 (다같이)



2018 중추절

감사예배 & 가족예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3)



예 배 순 서

중추절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목 도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송가 478장

찬 송 다 같 이

1. 참아름다와라 주님의세상은 저술로문의 옷보다더 고운백합화
 주찬송하는듯 저맑은새소리 내아버지의 지으신그 숨씨깊도다
2. 참아름다와라 주님의세상은 저아침해와 저녁놀밤 하늘빛난별
 망망한바다와 늘푸른봉우리 다주하나님 영광을잘 드러내도다
3. 참아름다와라 주님의세상은 저산애부는 바람과잔 잔한시냇물
 그소리가운데 주음성들리니 주하나님의 큰뜻을내 알듯하도다.

아멘

성 시 교 독 감사절 다 같 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회 중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 중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회 중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회 중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회 중 : 여호와의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이 지난 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 할 때, 우리를 주안에서 화목
 하게 하시고,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고 주의 사랑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
 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정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매일 매일이 늘 형통하
 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18 : 18~20 인 도 자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
 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 씀 감사의 명절 인 도 자

추석(중추절)은 한 해 동안 농사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감사란 단어는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혹자
 는 이야기 합니다. 추석을 맞아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상고하며 은
 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마다 날씨를 주제로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좋은 날은 당연히 감사하고 비오는 날, 바람 부는 날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데 어느 주일에는 눈보라가 마구 달려드는 악천후 기우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
 들은 이런 날씨에도 우리 목사님이 감사기도를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험한 날씨는 오늘 하루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
 도들은 아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감사할 이
 유를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1. 첫 번째로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삶에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거나 술로 신세타령을 할지 모릅니다. 혹은 또 혼자 도움
 을 통해서 이겨보려고 이를 악물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
 셧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려워도
 낙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기도를 통해 극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로 함께 하는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19절에 중요한 말씀은 "합심"이란 단어입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동역자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 세 번째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20절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 혼
 자인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
 게 하실 때 우리에게 참 유익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가족과 친구와 동역자를 주셨음을 감
 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